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

✎ 정성우 기자 | ⓒ 승인 2024.08.29 13:11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는 지난 28일 정읍시 이평면에 소재한 취약계층 주거지에서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농촌 집 고쳐주기'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일환으로 공사와 다솜동지복지재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읍지사 직원 30여명은 △ 보일러 설치 △ 도배 및 장판작업 △ 주변 환경 정리 등 노후화된 주택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어촌공 정읍지사 이건국 지사장은 “우리 지사는 농촌집 고쳐주기 외에도 농촌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정성우 기자 jsw8780@empas.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